

News & Issue

뉴스와 쟁점

2018년 멕시코 대선: 최초로 좌파 정권이 탄생할 것인가?

김기현

멕시코에 지금까지 좌파 정권이 한 번도 없었는가? 오늘날 기준에서 정책만을 놓고 보자면 1930년대의 라사로 카르데나스,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의 로페스 마테오스, 1970년대의 루이스 에체베리아 정부도 좌파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정책이 현재의 ‘핑크 타이드’ 좌파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계급으로 구성된 민중민족주의 성향의 제도혁명당(PRI) 소속이었다. 따라서 이들 정권은 포퓰리스트로 규정되기는 하지만 좌파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제도혁명당 72년 장기 집권 이후 2000년 정권 교체의 결실은 우파인 국민행동당(PAN)이 거두었다. 그 후 치러진 몇 번의 대선에서도 좌파 정당은 가능성만 보여줬을 뿐 정권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200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거대한 좌파 바람도 멕시코는 비켜갔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 하락의 여파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가 대부분 위기에 처해 있는 최근 상황에서 반대로 멕시코에서는 그의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좌파 정당의 승리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 주인공은 누구이며, 좌파 정당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또 집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로페스 오브라도르(출처: <https://steemit.com>)

1. 모레나 설립과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의 재부상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를 멕시코 사람들은 이니셜을 따와서 암로(AMLO)라고 부른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006년 대선에서 35.31%를 득표해 35.89%를 득표한 국민행동당(PAN)의 펠리페 칼데론 후보에 0.58% 차이로 패배했다. 그 후 2012년 대선에서도 31.60%를 득표했으나 38.20%를 득표한 제도혁명당(PRI)의 페냐 니에토 후보에 밀려 2위에 그쳤다. 그 후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정치생명도 앞서 민주혁명당(PRD) 대선 후보로 두 번 출마해 낙선한 쿠아우테мок 카르테나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012년 대선 패배 후 민주혁명당을 탈당해 자신이 이끄는 시민사회운동 조직인 모레나(MORENA: 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를¹⁾ 정당으로 전환시키고, 일찍부터 그의 2018년 대

1) 국가재건운동이라는 뜻이다. 보통명사 모레나(morena)는 스페인어로 원래 피부가 햇볕에 타서 갈색이 된 백인을 뜻한다. 하지만 오늘날 멕시코에서 모레나는 메스티소 대신에 혼혈인을 부르는 애칭이기도 하다. “내 사랑하는 모레나여,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가사의 유명한 국민가요도 있다.



제도 혁명당의 페냐 니에토가 박수를 받고 있다 (출처: <https://elpais.com>)

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모레나당은 2014년 설립 이후 2015년 총선에서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원의원 선거에서 기존의 3당(제도혁명당, 국민행동당, 민주혁명당)의 의석수가 3년 전에 비해 각각 9석, 6석, 48석 감소한 것에 비해 신생정당인 모레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각각 8.80%, 8.39%를 차지해 총 35석을 차지했다. 전국적 조직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신생 정당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였다²⁾.

제도혁명당의 페냐 니에토 정부는 석유산업 개방, 교육의 질 향상, 통신 독점 완화 등 필요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경찰, 정치인, 마약 카르텔이 연루된 게레로 주 학생 43명 실종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정치가 부패와 폭력 문제 해결에 무능함을 보여주자 국민들의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보다 커졌다. 좌파 분열 이후 급조된 신생 정당인 모레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016년 12개 주에서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 모레나는 한 주에서도 승

2) <http://computos2015.ine.mx/Nacional/VotosPorPartido/>

리하지 못했다.(대부분 국민행동당이 강세를 보이는 중북부 지역의 주들이라 국민행동당이 7개 주에서 승리하고, 제도혁명당이 5개 주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멕시코 32개 행정구역(31개 주, 1개 연방 구) 중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고, 도시와 농촌, 원주민과 비원주민, 농업과 제조업이 공존함으로써 2018년 대선의 전초전이라 간주되었던 베라크루스 주에서 기존 정당들의 부패를 강력히 비판한 모레나당의 후보가 국민행동당과 민주혁명당 선거연합 후보의 득표율 34.39%, 제도혁명당 중심 선거연합 후보 30.27%에 이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26.40%를 득표함으로써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대선 승리에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었다³⁾.

2. 트럼프의 등장과 로페스 오브라도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선 승리 가능성은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급속히 높아졌다. 약 6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미국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야기하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되는 NAFTA를 폐지하고, 마약 유통과 불법이민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멕시코에 부담하게 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가 2016년 6월 공화당 후보로 결정되고, 그 해 11월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멕시코의 정치 상황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당선이 멕시코 정치와 경제에 패닉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양국 간의 우호관계는 막을 내리고, 멕시코에는 다시 민족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그러한 민족주의의 부상이 제도혁명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다면, 당내 민족주의 노선을 대표하는 쿠아우테목 카르테나스 세력들이 탈당한 상황에서 제도혁명당은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 갈 수 없었다. 이미 부패와 폭력 문제에서 보여준 무능함으로 인해 지지도가 떨어진 제도혁명당의 페냐 니에토 정부는 미국

3) (<http://oplever.org.mx/Comunicacion/estadisticq.pdf>)



멕시코와 미국을 가르는 벽 (출처: <https://elpais.com/>)

의 트럼프 정부에 완전히 순종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항적이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민족주의(nacionalismo popular)를 표방하는 모레나당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지지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부패와 범죄 문제를 여당을 지낸 제도혁명당과 국민행동당이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생각과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한 멕시코의 민족주의 고조는 지금까지 가능성만 보여주었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대선가도에 실질적 희망을 비쳐주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자신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제는 트럼프와 맞서서 멕시코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 밖에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